
내 꿈의 궤도 수정: 꿈키움캠퍼스 발사대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였다. 사실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치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쏟아지는 학업 스케줄과 입시라는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어떤 궤도를 돌고 싶은지,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싶은지는 알지 못했다. 막연히 과학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진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내게 다가왔다. 학교 안의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마치 망원경의 렌즈 뚜껑을 열고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의 설렘처럼 다가왔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인 ‘꿈키움캠퍼스’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길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신청한 ‘꿈키움캠퍼스’ 수업은 우주를 주제로 한 심화 탐구 과정이었다. 단순히 교과서의 텍스트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수업이었다. 첫 수업은 ‘우주 역사’에 관한 강의로 시작되었다. 빅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가 팽창하고 별이 탄생하며 소멸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나는 과학이 단순한 수식의 나열이 아니라 거대한 서사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보며 던졌던 질문들이 현재의 과학 기술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왜 배우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주었다.

이론 수업이 끝난 후 이어진 ‘천체 망원경 사용법’과 ‘천체 관측’ 시간은 나의 학습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처음 망원경을 조작할 때는 초점을 맞추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미세한 손떨림에도 뷰파인더 속의 별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호흡을 가다듬고, 적경과 적위 축을 천천히 조절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마침내 렌즈 너머로 선명한 달의 크레이터와 목성의 줄무늬가 들어왔을 때의 전율은 잊을 수가 없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로를 찾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것을. 조금하게 결과만을 쫓다 보면 시야가 흔들려 목표를 잃기 쉽지만, 끈기를 가지고 천천히 초점을 맞춰나간다면 반드시 나만의 별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먹던 태도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기계를 조작하고 관측 대상을 찾아 나서는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업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익혀 밤하늘을 기록하는 과정은 과학과 예술, 기술이 융합되는 경험이었다. 노출값(ISO)과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희미한 별빛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나는 데이터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밤하늘의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그 실패의 과정조차 즐거웠다. 실패는 나의 부족함을 타하는 근거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값을 얻기 위한 데이터가 되어주었다.

‘꿈키움캠퍼스’ 활동의 백미는 단연 ‘에어로켓 발사’ 실험이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로켓의 날개 각도를 조절하고 공기 압력을 계산하여 로켓을 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모여 카운트다운을 외치던 순간, 내 심장도 로켓 엔진처럼 뜨겁게 박동했다. “3, 2, 1, 발사!” 물줄기를 뿜으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에어로켓을 보며, 나는 막연했던 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로켓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궤적을 눈으로 쫓으며, 나는 항공우주 공학자 혹은 천문학 연구원이라는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다. 책상에 앉아 문제집만 풀었다면 절대 느끼지 못했을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고교학점제와 ‘꿈키움캠퍼스’를 통해 경험한 우주 탐구 수업은 나에게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을 선물했다. 이전까지 학교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거대한 베이스캠프가 되었다. 내가 선택한 과목을 듣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경험은 자기주도성을 길러주었다. 우주 역사를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망원경과 카메라 조작을 통해 공학적 정밀함을, 그리고 로켓 발사를 통해 도전 정신을 배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소년이 아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서 길을 찾기 위해선 나침반뿐만 아니라, 직접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함을 배웠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나에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꿈키움캠퍼스'는 나의 꿈을 쏘아 올릴 발사대가 되어 주었다.



앞으로의 고교 생활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와 흐린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망원경의 초점을 맞추던 그 끈기로, 로켓을 발사하던 그 열정으로 나만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이제 막 1단 로켓을 분리하고 더 높은 우주를 향해 가속하는 중이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우주에서 길을 찾았다.
